

# 전주, 연이은 국제행사로 위상 높아져

### 시, 국제슬로시티 국제조정위·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 등 개최

전주시가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유네스코 본부 대표와 세계음식창의도시 대표단, 음식창의도시 주한대사, 국내창의도시 및 창의후보도시 대표 등 세계 30여개 도시 150여명이 참석하는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을 개최한다.

전주에서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제슬로시티연맹 하반기 국제조정회의와 지난 13일

과 14일 진행된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에 이어 10월 들어서만 이번이 세 번째다.

또한 전주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개국 350개 업체가 참가하는 '2016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며, 29일과 30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 선수단 5,000여명이 참가하는 '2016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도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최근 각종 전국대회를 잇달아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위상도 굳건히 다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는 민속 예

술을 재현하는 최대 규모의 축제인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1일과 2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 및 공동체 활동가 1000여명이 참가하는 '2016 공동체한마당' 전국행사가 진행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은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4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유네스코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에 걸맞은 창의도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속적인 창의

##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회 지회장 직권남용 여부 놓고 '내홍'

한국자유총연맹 전북 익산지회가 지회장의 직권남용 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회 산하 기구인 여성회는 지회장이 직권을 남용함은 물론 회원간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회장은 규정 외의 정당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

17일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회 여성회는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지회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며 "지회장은 뒤로하고 직권남용과 회원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회는 "지회장은 임명장을 받고 7개월 동안 700만원의 공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회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내야 된다고 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지회장 임명장을 받으려면 재정기여확약서에 서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재정기여는 그만 두더라도 보조금에서 가져 갈 것이 없는가 관여하며 익산지회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회장은 "재정기여확약서에 서약하고 올해 3월 26일부터 지회장으로 활동했다"며 "이들이 중앙 본부와 도지부에 폭 같은 사안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안보견학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회장에 임명되고 한 달 후 목포로 견학을 갈 때 (여성회에서)떡을 스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강요할 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지회장이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여성회 측의 입장"이라며 "경찰서 협력사업과 포순이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익산지회 3명에게 지원하는 행복지킴이 사업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회장은 "규정상 내내 3월 25일까지 1200만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어 현재 1100만원을 출연했다"며 "현재 사용한 700만원 정도의 금액은 본부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과 자유총연맹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하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세누리당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발표 및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속버스 옆자리 승객 성추행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운현 판사는 17일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2시30분께 안주군 봉동읍 제내리 익산 IC부근을 지나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B(24·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찾아가는 희망인문학' 강좌 개최

전주시가 평소 인문학을 쉽게 접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1년 내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주인문학365'의 일환으로 17일 주부평생학교에서 '찾아가는 희망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인문학을 통한 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평소 인문학을 쉽게 접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부평생학교 성인문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좌 참가자들은 그래픽 비스럼퍼우즈를 읽고 자신의 감정표현을

발표해 봄으로써 회복·치유의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희망인문학' 강좌는 오는 24일 주부평생학교에서 한 차례 더 열리고, 오는 11월에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수 주부평생학교장은 "이번 인문학강좌를 통해 참가자들의 개인 삶의 변화와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미술관 도자기 흠친 70대 입건

진안경찰서는 17일 미술관에서 도자기를 흠친 혐의(절도)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에 진안군 진안읍의 한 미술관에서 전시된 B씨(55)의 작품 1점(시가 50만원 상당)을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진안홍삼축제를 찾다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던 향토작가전시전 미술품을 구경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흠친 작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뒤 미술관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 기자

## 전주기접놀이, 대통령상 수상

### 전 단원 맨발 투혼으로 '전국 최고' 등극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진 '제57회 한국문화예술축제'에서 전북지역 대표로 나선 '전주기접놀이'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12면)

이번 축제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고풍스런 한옥마을과 가까운 한국무형유산원 특설무대에서 열려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전국 2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맨 마지막 순서로 공연을 펼친 전주기접놀이는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 들어 장대비로 바뀐 가운데 전 단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는 맨발 투혼을 펼쳐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부장관상은 경기도 포천, 은상은 경남

사천, 동상은 전남 여수팀에 돌아갔다.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는 1998년부터 삼천동 일원에서 매년 대보름, 백중 정가공연을 하며 살아있는 민속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지도상을 수상한 심영배(전주시 삼천동)씨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70~80대 연로한 회원들까지 잘 따라주어 오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며 "농경문화에 기반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도시문화 속에서 계승 발전 하는데 더 노력하라는 체적으로 삼아 전주기접놀이를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